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퇴직연금 소득대체율 하락과 배경

- 최근 중국은 연금 소득대체율이 50% 이하로 하락하는 등 공사연금의 소득대체율 목표치인 80%(국민연금 60%, 기업연금 20%)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, 직군별 소득대체율의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.
 - 1999년 이전 중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75% 이상이었으나, 현재 50% 이하로 하락하였고, 공무원과 일반기업 근로자의 소득대체율도 각각 80%와 50%로 큰 차이를 보임.
 - 특히 기업과 근로자의 기업연금 가입률이 모두 1%에도 미치지 못함에 따라 기업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%에 미치지 못함.
- 중국의 지속적인 최소연금지급액 상향조정과 비교적 높은 국민연금세율에도 불구하고 연금 소득대체율이 하락하는 주요 원인으로 임금수준의 급등과 비효율적 연금세수 확보를 들 수 있음.
 - 특히 최소연금지급액의 6년 연속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급액 평균 증가율(11%)이 임금 상승률(14%)보다 낮아 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됨.
 - 중국의 국민연금세율은 28%(개인이 8%, 기업이 20%)로 선진국 평균연금세율의 1.5배 이상이지만, 매년 1,500~2,000억 위안(230~308억 달러)의 연금세 수입이 연금소득 보장보다는 연금제도 개선에만 지출되고 있고, 국민연금의 투자수익률도 2% 이하에 불과함.
- 이에 따라 적극적 소득대체율 개선노력과 민영연금상품의 활성화를 통한 소득대체율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 - 중국연금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중국정부의 지급연금 예산 확대, 기업연금제도개선, 세금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임.
 - 이에 중국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영연금상품의 보완이 강조되고 있음.

<남풍창 5/3>